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설정 : 국토개발을 사례로

Establishment of the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ndicators

이용우(국토연구원, ywlee@krihs.re.kr)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천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반 노력의 성과를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지표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개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계획이 수립, 집행됨에 따라 과연 우리 국토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개발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는 동시에, 국토정책 및 계획의 방향과 내용 결정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OECD나 UNCSO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시하여 국가별이나 부문별 지표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독일 등은 기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개발 관련 현상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감안한 주제접근식 지표구조와 분야-정책과제-세부목표-지표의 4계층 지표체계 그리고 측정가능성·객관성·이해용이성·명확성·대표성의 지표선정기준으로 구성된 지표설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지표설정은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지표 제시)에서는 국토개발을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 자원관리의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정책과제 및 세부목표 등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단계(1차 평가)에서는 1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에게 1단계에서 제시된 지표의 중요도를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중복지표 정리와 지표 명료화도 이루어졌다. 3단계(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 1차 후보지표에 대하여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의 중요도를 조정한 2차 후보지표를 제시하였다. 4단계(3차 평가)에서는 2차 후보지표를 대상으로 측정가능성, 객관성, 이해용이성, 명확성, 대표성 등 지표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후보지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5단계(지표 선정)에서는 국토개발의 6개 분야에 대하여 중요도 점수가 높고 타 분야와 중복되지 않으며 5개 지표선정기준을 충족하는 43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지표를 활용하여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작성의 제도적 근거를 '국토기본법'에 포함하며, '국토개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지침'을 통해 지표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표를 활용한 평가결과의 이행을 제도화하며, 관련지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국토관련 통계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